

SPECIAL THEME 1

달력으로 읽는 세상(1)

글. 위영 (국가기록원 콘텐츠기획과)

역사 전통시대 삶의 디자이너

1896年 1月

陽曆 曆書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 1896년 1월 1일, 조선 사람들은 그 이전과 다른 새 아침을 맞았다. 바로 양력(陽曆)이라는 낯선 시간과 동거가 시작됐다. 갑오년과 을미년의 정신없는 난리를 거친 조선 사람들은 졸지에 태양력이라는 서양 시간에 편입됨으로써 또 하나의 혼돈에 마주했던 것이다.

이 글은 양력 도입 120년을 맞아 「달력으로 읽는 세상」이라는 주제로 2회에 걸쳐 전통시대 역사와 근대 이후 달력을 개략적으로 다룬다. 이번 호에서는 「역사, 전통시대 삶의 디자이너」를, 다음 호에서는 「달력, 근대의 시간을 연제한다」.

양력(陽曆), 낯선 시간 속으로

날짜가 진행되는 규칙을 수록한 것이 달력이다. 달력을 주제로 삼아 수수께끼를 낸 재미난 기록이 1908년 5월 13일 「大韓每日申報」(雜報)에 실려 있다. 김선비라는 사람이 지은 것인데, “머리와 꼬리는 차고 허리는 따뜻하다 무엇이나? 달력이다. 봄과 겨울이 차고 여름은 덥지 아니하냐.”라며 4계절이 있다는 내용이다. 그러면 우리에게 익숙한 일요일은 언제부터 휴일로 정착되었을까? 답은 1895년 4월부터이다. 올해 일 년은 모두 몇 날일까? 366날로 윤년(윤일)에 해당한다. 우리의 달력에는 양력과 음력이 병기돼 있으며, 여기에 요일과 날짜, 윤년·윤달·윤일 등이 복합적으로 작동한다. 게다가 국가 기념일과 명절, 절기(節氣)까지 들어 있어 꼼꼼히 들여다봐야 달력의 전모가 선명하게 보인다.

양력 중심의 달력과 요일은 지금부터 약 120여 년 전에 도입된 시간개념으로 우리의 전통적 시간질서와 공존했다. 전근대에는 태양·별·달의 흐름으로 한 해를 읽고 느끼며 호흡하면서 순환적 질서로 인식했지만, 근대에는 판도가 바뀌면서 태양력이 생활의 기준이자 모범으로 정착됐다. 지금은 양력이 큰 활

“인간이 의도한 시간배열을 극명하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달력이다”



● 단기 4281년 무자년 일력, 1948년. ©국립민속박물관

이 달력은 무자년 일력(日曆)으로 돼 있으며, 단기(檀紀)는 1961년까지 사용되었던 우리의 연도표시로 단군기원(檀君紀元)의 줄임말이다. 달력에는 양력 날짜가 요일과 함께 큰 글자로, 음력 날짜는 작은 글씨로 표기됐다. 맨 아래에는 ‘연령대조표’ 좌우로 우수부터 대한까지 24절기가 소개돼 있다.



● 경진년 대통력, 1580년. ©국립민속박물관

현재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대통력으로 월의 대소(大小), 윤월(閏月) 배치, 한 해 날짜 수, 입기시각 등 시헌력 체제와 비슷하다. 보물 제1319호다.

자로 보편적인 힘을 얻고 있지만, 음력도 제사, 명절, 생일 등에서 여전히 자기의 위치를 점한다.

고종(高宗)은 1895년 양력을 국가 표준력으로 공포하면서, 이 해 11월 16일 다음날을 1896년 1월 1일로 한다고 했다(1896년을 기념하여 고종은 연호를 ‘建陽’이라 했다). 서양에서 그레고리우스 달력이 1582년에 확정된 것을 고려하면 무려 300여 년이 지난 후였다. 물론 이 달력시스템이 채용 당시부터 전 세계에 적용되고 보편적인 달력으로 정착된 것은 아니었다. 영국은 1752년에, 스웨덴은 1753년에, 터키는 1927년에, 중국은 1949년에 그레고리우스 달력을 채용했다. 각 나라마다 양력 달력도입에 시간차가 있었던 것은 독자적인 역법(曆法) 체계에 근거한 전통적인 달력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도 고유의 역법체계에 따라 시간에 의미를 부여했지만, 근대에 들어와 고요한 나라로 남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역서(曆書), 전통시대 삶의 디자인

태양과 지구, 달은 대자연의 일부다. 공전과 자전을 통해 자연적 순환으로 밤과 낮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라는 구분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이 과거를 추적하고, 현재의 가늠하며,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것은 시간의 연속선상에 놓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의도한 시간배열을 극명하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달력이다.¹⁾ 과거의 행위와 양식, 기념, 생일 등 인위적인 인간의 시간은 엄격하게 따지자면 똑 같은 날이 아니다. 자연의 순환법칙에 인간이 측정으로 얻어낸 결과물을 엮었을 뿐이다.

우리는 대통력(大統曆), 시헌력(時憲曆), 명시력(明時曆) 등 전통적 달력 용어에 익숙하지 않다. 양력과 음력이라는 용어가 보통명사로 정착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전통시대 역서(曆書) 읽기가 난해하고 복잡해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 대통력은 중국 명(明)나라의 달력으





●● 건륭 54년 시헌서 개요(1~2쪽) 부분, 1789년. ©국립민속박물관

맨 오른쪽쪽 '大清乾隆'은 청나라 건륭제의 연호로, 건륭 54년인 기유년에 적용될 달력이라는 말이다. 1789년은 한 해가 모두 384일인데, 윤 5월이 있는 윤달이 있기 때문이다. 기유년(己酉) 각 월별로 절기(節氣)의 입기시각이 기재되어 있다. 정월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정월은 대월(大月, 30일)로 초하루의 간지는 무오(戊午)다. 다음 절중(節氣)인 입춘(立春)은 서울을 기준해 초 9일로, 때는 '申初二刻四分'이다. 지금의 시간으로 환산하면 오후 3시 34분 정도다. 중기(中氣)인 우수(雨水)는 24일 신사(辛巳)로, '午正初刻一分'인데, 이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오후 12시 1분 정도다. 윤 5월은 무중월(無中月)로 절기는 있으나 중기가 없는 달이다. 여기에는 6월의 절기인 소서(小暑)만 들어 있으며, 입기시각 15일 경자 '寅正一刻四分'은 15일 오전 4시 19분 정도이다.

주

1) 달력과 관련한 용어로 역사(曆書), 역법(曆法), 책력(冊曆), 월력(月曆) 등 다양하다. 달력은 월력(月曆)을 한글과 한자를 사용한 조어다. 책력은 일 년 동안의 월일, 해와 달의 운행, 월식과 일식, 절기, 특별한 기상 변동 따위를 날의 순서에 따라 적은 책을 말한다. 역법은 전체의 주기적 현상을 기준으로 하여 세시(歲時)를 정하는 방법이다. 태양력이 도입된 이후에도 달력은 일력(日曆)이 아닌 달력으로 불린다. 이는 달을 숭배하는 문화와 역사전통에서 비롯됐다고 본다(김일권, 『대한제국 명시력과 전통달력의 구성 고찰』, 『달력, 시간의 자취』, 2014, 112쪽).

2) 엄밀히 말하면 달과 태양의 운행을 중심으로 시간을 엮은 태음태양력인데, 흔히 태음력 또는 음력으로 부른다.

3) 음력 중심의 시헌력·명시력은 태양력 도입 이후에도 계속 제작됐다. 태양력에 맞춘 달력으로는 시헌력 등의 이름이 아니라 연호의 명칭을 따서 별도로 만들어졌다. 따라서 1908년 태양력으로 통일되기까지 정부가 제작한 달력은 태양력과 태음력이 병존했다(이창익, 『근대적 시간과 일상의 표준화』, 『역사비평』, 2002, 410쪽). 명시력은 일제시기에 들면서 『조선민력』(1911~1936년), 『약력』(1937~1945년)으로 바뀌었고, 광복 이후에는 『대한민력』으로 변경돼 오늘에 이른다.

4) 이창익, 『조선시대 달력의 변천과 세시의례』, 2013, 41쪽. 보통 시헌서에는 권두 서명과 12달의 대소(大小), 아래에 24절기의 입기(入氣) 시각이 적혀 있다. 다음 면에는 연신방위지도(年神方位之圖)가 그려져 있고, 이후 날짜와 일진(日辰, 해당 날의 간지)을 중심으로 위에는 달의 삭망이, 날짜 아래에는 일진의 의(宜)와 불의(不宜)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로 조선 전기에 통용됐으며, 시헌력은 조선후기 청(淸)나라로부터 도입된 달력을 말한다. 이 두 달력은 명실 공히 음력을 근간으로 하되 양력을 가미했다.²⁾

한편, 명시력은 조선이 대한제국으로 변모하는 1898년에 채택된 달력의 이름을 말한다.³⁾ 전통시대 대통령, 시헌력의 내용 체제는 거의 유사하다. 현재 대통령은 거의 남아 있지 않으며, 시헌력은 상당 수 남아 있다. 시헌력은 조선 후기 역법체계의 근간을 이루었다. 시헌력은 천문역법에 의해 분할된 각각의 연월일시에 독특한 시간 이미지를 부여하는 점성학적 산물인데, 역사 구조에서 천문역법은 시간 형식을 그리고 개인과 사회, 문화 등의 신념체계와 연계한 다양하고 촘촘한 층위로 시간 내용을 구성한다.⁴⁾

전통시대 공간, 시간에 대한 관념은 천자(天子)-국왕(國王)-제민(諸民)의 구조 속에서 이루어졌다. 천자가 달력을 만들어 변방의 제후국에 배포하고, 이 달력을 다시 제후가 자신의 통치 공간 곳곳에 배포하는 것은 천자의 지배하에 놓인 모든 공간에 단일한 시간질서를 부여하는 상징적인 일이었다. 따라서 천자의 통치권 안에서 다른 책력이 유통된다는 것, 즉 책력을 사조(私造)하여 배포하는 일은 일종의 반역 행위였다.⁵⁾

조선시대 국왕은 연말이 되면, 신하들과 지방 관리들에게 달력을 제공했다. 시간의 흐름을 읽고 이를 백성을 가르친다는 관상수시(觀象授時, 曆象授時)는 중요한 통치행위의 하나였다. 백성들은 역사에 따라 시간 규범과 질서를 오랜 기간 동안 익혀 왔으며, 일상생활을 움직이는 근간으로 이해했다. 따라서 역사의 시간과 공간 질서는 달력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국왕과 신하, 백성들을 연결시키는 정치적 매개물이자 자연 질서를 인간의 활동으로 연결시켰다. 조선시대 국왕이 신하들에게 선물한 달력은 여름 단오날에 하사한 부채와 함께 하선동력(夏扇冬曆)이라 불렀는데, 다음은 『경국대전』 예전(禮典) 장문서(藏文書)의 내용이다.

매년 책력을 나누어 준다. 관상감에서 4천부를 인쇄하여 여러 관청과 각 고을에, 그리고 임금의 집안사람들, 문무당상관 이상의 관리들에게 나누어 준다. 제주의 세 고을 이외에 각 고을들에서는 모두 종이를 바치고 받아가며 나머지 책력은 종이와 바꾸어 이듬해에 쓸 밀천을 마련하게 한다. 교서관(校書館)에서도 1천부를 인쇄하여 여러 가지 책들을 인쇄할 밀천을 마련한다.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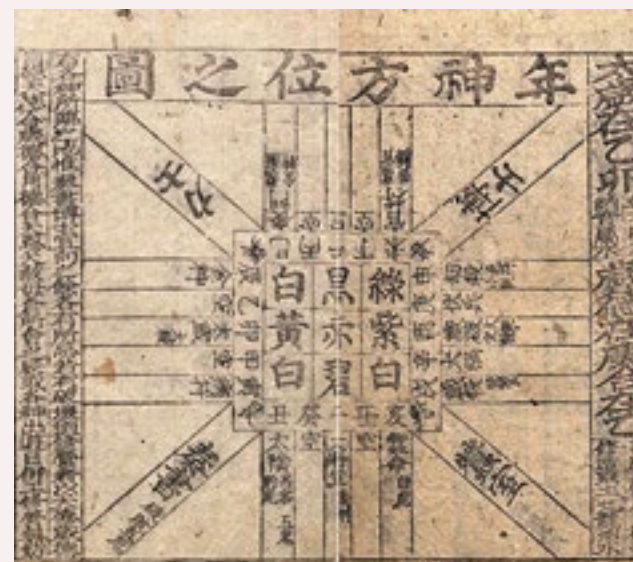
동짓날 관상감(觀象監)에서 달력을 만들어 국왕에게 올리면 국왕은 신하들에게 달력을 새해 기념 선물로 제공했다. 국왕의 시혜(施惠) 행위로 곳곳에 배포된 달력은 왕조의 권위는 물론 국가와 백성의 공간적·시간적 일체감 형성에 큰 기여를 했다. 역사에 수록된 절기(節氣), 택일(擇日), 택방(擇方) 등 다양한 생활정보와 내용은 전통시대의 공간과 시간의 질서를 만들어냈다. 국왕을 비롯한 백성들은 역사의 시간을 기준으로 계절의 흐름인 절기, 시간과 행위를 결정하는 택일과 택방 등 일상생활을 영위했던 것이다.

조선시대를 관통하는 역사의 체제를 보면, 역사명을 필두로 첫째 장에는 절기의 시간과 월의 대소, 둘째 장에는 해당 년을 결정하는 연신방위지도(年神方位之圖)가 수록되어 있다. 다음으로 1월부터 12월까지의 간지(干支), 28수(宿), 오행(五行), 의(宜)와 불의(不宜) 등이 날짜별로 기재되어 있다. 방향(공간)과 시간에 따라 인간의 행위 질서를 규정하고 있어, 모든 사람들이 길흉(吉凶)을 판단하는 기준이 됐다. 앞부분은 천문을 관측한 과학적 시간질서를 밝혀 놓은 부분이라면, 뒷부분 매달 월력(月曆)에서는 인간의 행위에 대한 매년·매달·매일의 길흉의 양상을 자세히 밝혀놓고 있다. 이렇듯 전통적 역사의 내용은 천문의 흐름을 토대로 한 역법(曆法)과 인간의 다양한 행위가 시간 질서를 규정한 역주(曆註)가 밀접하게 접속했다.

주

5) 이창익, 앞의 글, 2002, 411쪽.

6) 윤국일 옮김, 『신원 경국대전』, 2005, 253쪽.



●● 건륭 60년 시헌서 연신방위지도(年神方位之圖), 1795년. ©국립중앙도서관

우측 붉은 글자 '太歲在乙卯 歲德在庚合在乙'은 태세는 을묘에 있고 세덕은 경의 위치에 세덕합은 을의 위치에 자리 잡는다는 내용이다. 천간인 을(乙)의 오행은 목(木)이고 지지인 묘(卯)의 오행은 목(木)이며, 납음(納音)은 수(水)이다. 우측 아래쪽의 '乙庚上宜修造取土'는 '을과 경의 방위가 수리하고 만들고 흙을 취하는데 가장 좋은 방위이다'라는 내용이다. 다음 '八日得辛九龍治水'는 수재나 풍흉에 관련된 사항으로 정월 첫 번째 후일이 8일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九龍은 정월 첫 번째 辰日이 9일에 해당한다는 내용이다. 가운데 구성도(九星圖) 주위로 24방위가 자리 잡으며, 9년 주기로 순환한다. 자세한 사항은 이창익, 앞의 책, 2013 참조.



●● 경직도(부분), 조선 후기 ©국립민속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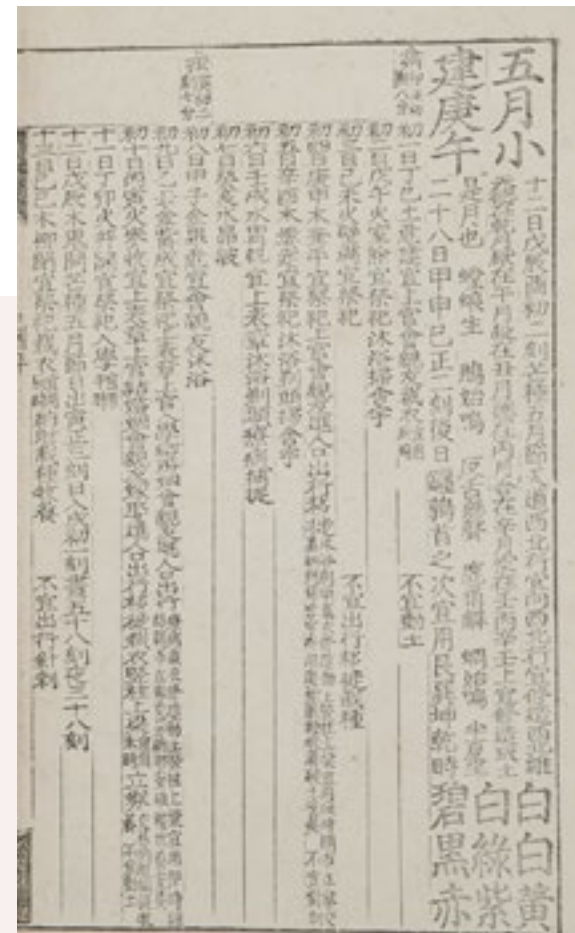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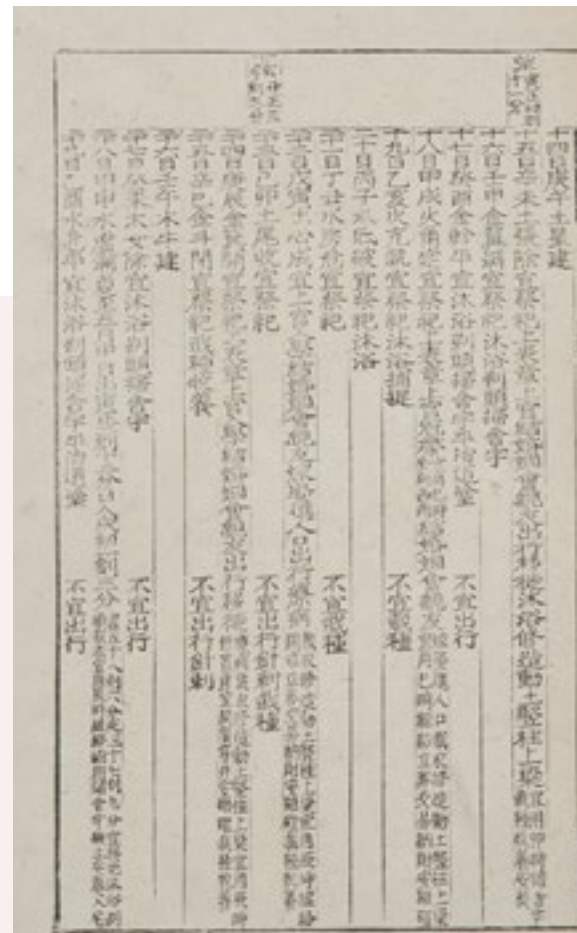
여름 날 모내기 관련 풍경이 묘사돼 있다. 뒷 쪽에는 모내기가 한창이며, 바로 아래에는 새참을 먹는 사람들의 모습이 정겹다. 그 아래에는 썰레질을 하고 있는데, 모내기가 끝나면 바로 모를 심으려고 논바닥을 고르는 광경이다.

●● 건륭 54년 시헌서 역면, 1789년, ©국립민속박물관

5월 역면(曆面)이다. 5월은 소월(29일)로 간지로 경오(庚午)다. 상단에는 달의 모양에 따라 합삭·상현·망·하현의 해당 날짜를, 중단에는 절기와 날짜별로 행위에 대한 역주가 자세히 수록돼 있다. 1일부터 10일까지는 초(初)로 명기했으며, 나머지는 날짜만 표기했다. 예컨대 15일을 보면 일진(日辰)이 신미(辛未)로 오행(五行) 가운데 토(土)에 해당한다. 그리고 장(張)은 28수(宿) 가운데 26번째에 해당하며, 제(除)는 12직(直)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역주 내용이 수록돼 있다. 역주 '宜祭祀上表章上官結婚姻會親友出行移徙沐浴修造動豎柱上梁 宜用卯時掃舍宅栽種牧養安葬'으로, 이 내용을 풀면 '문서를 올리는 일, 관청 가는 일, 혼인 맺는 일, 친구를 만나러 나가는 일, 이사나 목욕, 수리하거나 만드는 일, 흙을 다루는 일, 들보를 올리는 일은 좋다. 묘시(오전 5~7시)에 집안청소, 종자 심기, 가족 기르기, 장사 지내는 것은 좋다'이다. 이러한 역주는 일상에서 택일(擇日)의 중요성을 반영한다.

시헌서의 앞 부분은 대체로 절기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중심을 이룬다. 조선은 농사를 근간으로 하는 농본(農本) 국가였던 만큼 일반 백성들은 구체적인 시간 개념인 식보다는 생활과 시간질서의 흐름을 중시했다. 당시 농업 생산 활동과 일상생활의 유희 및 놀이 등이 달력에 따른 24절기에 의해 이루어졌고, 여기에 민간신앙이나 제례가 긴밀히 맞물렸다.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절기행위가 일상생활의 시간적 지표로 작용했던 것이다.⁷⁾

조선 후기 제작된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농가월령가(農家月令歌)」, 「경도잡지(京都雜誌)」 등 각종 세시 풍속서(風俗書)는 대부분 농사의 경험과 절기의 시간 리듬을 토대로 했다. 나아가 24절기는 순환적인 경험과 지혜, 그리고 인간의 역사적·신화적 이야기들이 결부돼 인문과 자연 융합의 연결고리를 형성하였다. 국가, 지역(군현), 마을, 가족 단위의 독특한 공동체 의례와 행사 등 문화적 토양으로 변화, 정착했다.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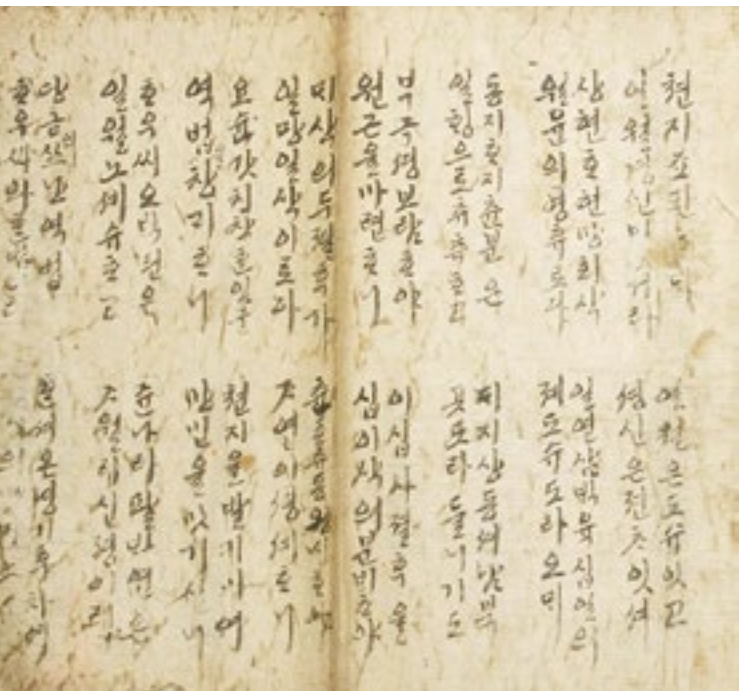
7) 김왕배, 「도시, 공간, 생활세계」, 2011, 35~36쪽.

8) 정연식, 「조선시대의 시간과 일상생활」, 『역사와 현실』 37, 2000, 256쪽. 예컨대, 자시(子時)는 2시간 간격으로 자녁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로, 전반부는 초(初)로, 후반부는 정(正)으로 했다. 초와 정은 각각 초각, 1~4각까지로 나누었다. 각(刻)은 오늘날 15분 단위와 비슷하다. 따라서 자초(子初)는 11시, 자정(子正)은 12시 정도로 환산되며, 자초 1각 2분은 11시 17분 정도이다.

이러한 순환은 오랜 경험과 시간적 토양에서 만들어진 절일(節日)은 농경 국가에서 필수적인 순환시스템이자 시간지표였다. 전통시대도 오늘날처럼 한 해를 4계절로 나누었으며, 각각 6개의 절기를 배치하였다. 매달 2개씩의 절기(節氣)와 중기(中氣)를 배치함으로써 농사 관련한 경험을 더욱 공고히 했다. 이를 세분해서 절후(節候)라는 개념도 있었다. 지금처럼 요일(보통 7일) 개념이 없었는데, 후(候)는 절기 단위가 15일로 나뉘는 것에 근거해 이를 다시 5일 단위로 나눈 개념이다. 한편 날[日]은 10간(干)과 12지(支)를 순환적으로 배치해 60간지(干支)로 풀이해갔다. 지금도 달력에 작은 글씨로 적혀있는 병신(丙申), 갑오(甲午), 병오(丙午), 임술(壬戌) 등은 간지를 말한 것이다. 전통 역사나 문서 등에 출생일을 적을 때는 해[年]도 60갑자(甲子)로 했는데, 환갑(還甲)은 60의 순환이 무난해 이를 축복하는 큰 행사로 자손들은 부모를 위해 회갑연(回甲宴)을 열었다.

시헌력 개요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월의 대소(大小) 구분, 간지, 절기와 중기의 입기시각이 수록돼 있으며, 1년 한 해의 총 날짜수도 표시됐다. 각 절기의 입기시각(入氣時刻)을 살피려면 시헌력의 시간 분절을 알아야 한다. 조선 전기 대통력은 하루 시간을 12진(辰) 100각(刻)으로 했다. 조선 후기 시헌력에서는 1일을 12진 96각으로 했는데, 여기서 1각은 15분(分) 정도였다. 보통 하루 시간의 출발은 자시(子時,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였는데,⁸⁾ 예컨대 '자정초각삼분(子正初刻三分)'의 경우 지금 시간으로 환산하면 새벽 12시 3분 정도이다. 일반 백성들은 각(刻)보다는 오경제나 12진으로 하루의 시간대를 짐작했던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서울의 경우 시간대를 알려주는 것으로 종각이 있었다. 인정(人定)은 대궐문을 닫는 시간으로 초경(初更,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3점에 28번을 쳤고, 파루(罷漏)는 대궐문을 여는 시간으로 5경(새벽 3시에서 5시까지) 3점에 33번을 쳤다. 인정부터 파루까지는 통행금지 시간이었다.

역서의 한 해 총 날짜 수는 음력 달에 의해 계산된 방법이다. 달이 합삭-상현-보름-하현-합삭까지는 보통 29일이었기 때문에, 이를 대소월(大小月)로 잡으면 354일 내외가 된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달이 절기 가운데 중기(中氣)가 없는 달이 생겨난다. 이를 무중치윤법(無中置閏法)이라 하는데, 24기 가운데 중기가 없는 달인 무중월(無中月)을 윤월(閏月)로 삼는다는 것이다.⁹⁾ 따라서 윤달이 들어 있는 해는 1년이 384일 내외가 된다.



●● 농가월령(農家月令) 앞 부분, 조선 후기. ©국립민속박물관

정학유(丁學游, 1876~1855)가 지은 「농가월령가」를 모본으로 해 지은 농가월령으로 추측된다. 정학유의 월령과는 순서가 약간 다르다. 앞부분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천지 조판하매 일월성신 비치거라.
 일월은 도수 있고 성신은 전자 있어
 상현 하현 망 회 삭 월윤의 영후로다.
 일년 360일의 제 도수 돌아오매
 동지 하지 춘분은 일행으로 추측하고
 대지상 동서남북 곳 따라 틀리기도
 북극성 보랍하여 원근을 따르하니
 24절후를 12삭에 분배하여
 매삭의 두 절후가 일망일삭이로다.

조선의 역서에는 60간지를 토대로 매일, 매월, 매년이 반복되는 순환적인 흐름이 보편적이었다. 매년 반복되는 계절과 매월, 매일 간지마다 피해야 할 행위 등이 달력을 통해 일반 백성에게 파급됐으며, 그 규정력은 택일 등에까지도 언급되는 광범위한 시간의 흐름에 부응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러한 의례와 행사의 주기적 반복은 그 자체의 의미를 강화시킨다.¹⁰⁾

순환적 시간관념과 질서는 각 나라의 크고 작은 행사뿐만 아니라 개인, 마을, 지역 단위의 독창적인 의례를 만들어 냈으며, 오랜 기간 굳건한 전통으로 작용했다. 전통 역서는 직선적인 시간의 흐름보다는 일년 단위의 시간 속에 일상 생활과 관련한 다양한 길흉 관련 내용들이 들어 있다. 따라서 역서의 시간은 먼 미래가 아닌 일 년에 일어나는 모든 시간 질서를 규정했고, 일반 백성들은 그 믿음으로 생활을 유지했다.

역서(曆書), 생활의 시간 규범

전통적 달력시스템에는 명절, 세시풍속, 절기뿐만 아니라 장날, 문중제사 등이 배치돼 특정 날과 달에 대한 기억은 필수적이었다. 시집 온 며느리가 가장 먼저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조상의 제삿날을 외우고 준비하는 것은 한 가문의 연중의례라는 시간적 관념을 전제로 한 것이기도 하다. 한 해의 시간 질서 외에도 길흉, 택일, 택방까지 담았던 역서는 단순한 달력 이상의 위상으로 일반 백성의 안정적 삶과 방향을 안내했다. 각 단체와 개인마다 삶의 층위와 수준은 달랐겠지만, 단일한 시간질서와 관념에서 제작·배포된 달력은 사용 주체에 따라 정치적·종교적·사회적·문화적 생활 동기를 제공하고 시간과 행동의 내면화와 고정화를 가져온 매개물로 자리했다. 이러한 택일, 택방의 방식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의 심리를 좌우하는 경우가 있다. 이사, 결혼, 개업, 집짓기 등은 그 대표적인 사례다. 이러한 택일이나 택방의 기본적 발원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역서였다.

전통적 시간관념은 자연적 시간과 인간 행위의 조화·균형을 이상으로 했다. 시간은 인간을 위해 존재했으며, 역서는 시간을 인간본위로 해석한 것이다. 역서의 시간은 임금이 형식적으로 배포하고 천명을 부여받았다는 권위의 상징이기도 했지만, 임금도 시간의 리듬과 질서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역서를 토대로 일 년, 계절, 한 달, 하루, 절기 등의 순환적 시간관념이 문화적 동질성을 만든 토양이 됐다. 여기에 전통적인 오행, 60간지, 별, 달 등을 시간 흐름에 반영시켜 인간의 일상행위를 안내했다. 이런 시간 질서의 문화적 토양 위에서 공동체 문화와 의례, 세시풍속 등이 일회성에서 연례적 행사로, 장기 지속의 문화를 탄생·변화·정착시켜 왔던 것이다. 또한 개인은 제사, 생일, 환갑, 이사, 집짓기 등의 일상생활에서 시간적 리듬과 공간적 시간에서 역서의 범주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다. 역서는 우리 역사에서 선인들이 시간의 리듬을 일상에서 어떻게 해석해 내고 적응했는지를 알려주는 출발점 그 자체였다.

조선이라는 거대한 역사 공간에서 시간은 일상의 흐름을 규정했다. 조선의 시간은 마냥 흐르는 시간이 아니라 사람의 생활, 문화, 사회를 만들고 삶에 의미를 부여했던 기본이자 전제로서의 시간이었다. **IN**



●● 사람의 일생(부분), 조선 후기. ©국립중앙박물관

사람의 일생을 다룬 그림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경사스러운 일을 중심 소재로 한다. 돌잔치, 혼인식, 회혼례 등 내용에 따라 8폭이나 12폭으로 묘사됐다. 위 그림의 소재는 돌잔치로 태어난 지 1년이 지날 무렵에 실시됐는데, 아이의 성장과 행복을 기원하는 행사를 담았다. 역서의 시간에 포착된 일상의 중요 행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주

9) 이창익, 앞의 책, 2013, 101쪽. 10) 이창익, 앞의 글, 2002, 408쪽.

필자 소개 writer introduction

국가기록원 콘텐츠기획과에서 편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